

2011 빛고을불교아카데미 마지막강의 - 송광사 광원암 암주 현봉 스님

실로 엮어진 천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왜?

“2011 빛고을불교아카데미”가 11월 2일 (대승불교의 정수, 반야심경)의 저자 송광사 광원암 암주 현봉 스님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성료됐다. 현봉 스님은 강의를 통해 대승불교의 중심은 반야사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반야심경〉에는 모든 경전의 뜻이 함축돼 있고, 해탈의 길, 대 자유인의 길을 실해져 있다”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모든 존재와 어울려 살 수 있는 수행자의 길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양행선 전남지사장

대승불교의 정수

불교가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바깥세상으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승불교에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반야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야부 경전은 불교 본래의 정신에서 떨어져 혼교적인 주석학에 몰두하고 있던 부파불교에 대한 반성을 비롯해 불교 근본정신을 다시 되살리려는 각성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아함경〉의 근본인 연기법을 공(空)사상으로 해석한 반야부 경전은 반야바라밀에 중점을 두고 보살도의 실천도 반야바라밀의 완성에 있음을 설교했습니다. 반야바라밀은 공(空) 사상입니다. 반야부 경전은 공 사상의 바탕이 되고 뿌리가 돼 중관과 유식, 여래장 계통의 수많은 대승경전을 등장시켰습니다. 때문에 반야부 경전을 이해하지 않고는 대승경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야부 경전은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승경전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방대한 양을 자랑합니다. 반야부 경전은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먼저 성립된 경전에 속합니다. 반야부 경전은 대승불교와 함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승(大乘)이라는 말을 처음 등장시켰으며,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반야부 경전은 시작도 끝도 공(空)입니다. 〈반야심경〉은 260자의 한자로 이뤄진 짧은 경전이지만, 모든 경전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모든 의식에서 〈반야심경〉을 기본으로 독송합니다.

〈반야심경〉에는 모든 공동으로부터 해탈하는 길, 대자유인이 되는 길이 실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재(自由自在)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아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말하는 ‘free’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경전에 나오는 자유라는 말은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인 줄 알고 귀결될 줄 아는 것이 자유자재의 삶입니다.

이를 관하는 것이 바로 관자재(觀自在)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을 관자재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관자재보살은 대자유인입니다. 어디에서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대상을 살피는 것은 관이라고 합니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겪고 있는 고통의 소리를 듣고 갖가지 방편으로 제도하시는 분입니다. 관세음은 구세의 자비를 실천하는 측면을 강조했고, 관자재는 지혜 즉, 반야의 돈오(頓悟)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둘이 아니며 깨달음의 지혜와 그 실천인 자비는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세음과 관자재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방법이 〈반야심경〉의 핵심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절에서 가정을 위해, 남편 사업을 위해, 자식들 학업을 위해 기도를 할 때 부처님께 초 공양을 올립니다. 초 불을 켜는 것은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어둠을 거둬 내고, 무명을 거둬내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장애를 건어내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의 불을 켜야 합니다.

관자재의 관(觀)은 관찰의 주체이고 자재(自在)는 관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관자재는 관찰자가 바깥의 다른 대상을 관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자신을 관하는

것입니다. 즉, 주관인 나 자신이 객관인 바깥 세계를 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회광반조(廻光返照)하는 것입니다. 회광반조는 마음의 빛을 돌이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관하는 것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성취해 모든 현상의 참모습이 본래 공함을 깨달아 전도된 동상을 여의고 아무 걸림 없는 대자재를 성취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룬 분으로 수명의 자재, 마음의 자재, 업에 떠달리지 않는 자재, 재물의 자재, 지혜의 자재, 방편의 자재 등을 성취해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실상을 깨달아 스스로 갇혀있는 틀을 벗어난 관자재보살은 어디에도 얽매이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참 생명의 무한 가능성을 실천하는 수행자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고역의 질곡을 벗어나

〈반야심경〉 대자유인이 되는 길 있어
‘자유자재’는 서구의 ‘free’와 달라
이 세상 모든 것 나로 인해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 바로 알아야 행복해

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선각자입니다.

동체대비 삶을 실천해야

근세 서구에서는 신(神)이라는 미망(迷妄)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르네상스기에 휴머니즘이 일어났습니다. 휴머니즘은 현대의 물질문명을 낳는 토대가 됐고, 오늘의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서구 휴머니즘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자연과 다른 생명을 인간과 분리시키고, 자연을 마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며 미숙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와 다른 생명,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잃어버린 인간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나와 이웃, 인간과 다른 생명, 그리고 자연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편리한 쫓아 물질문명을 추종하던 몽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때려야 될 수 없는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있다’는 연기(緣起)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존재의 참모습을 바로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상호의존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연기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나와 내가 둘이 아니고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니고,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니고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니 너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자연의 파괴가 나의 파괴이며, 환경의 오염이 나의 오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삶을 실천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모순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

이 최상의 지혜이며, 일체의 고역을 건지는 최상의 자비인 반야바라밀다의 모습입니다. 실천적인 삶의 모든 존재를 고통의 질곡으로부터 해탈하는 길입니다.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般若波羅蜜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반야바라밀다는 큰 신비의 주이며 큰 광명의 주이며, 위없는 주이며, 견줄 바 없는 주문이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주문입니다. ‘시무상주’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또 ‘무등’은 어디에다 비견할 수 없는 최고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생존합니다. 마치 여러 가닥의 실로 짜여있는 천과 같습니다.

생사대해를 넘는 강이 극락강입니다. 극락강에는 차안피안(此岸彼岸)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불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불을 켜고 비춰야 합니다. 나만 비추지 말고 모든 이웃사람들, 모든 존재들을 다 비춰야 합니다. 자타(自他)가 전부 하나인 빛에 가만 나와 내가 없습니다.

서로 합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듯, 서로서로가 자타일시 돼야 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면서 등불을 켜면 실상의 연기에 의해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돼야 합니다. 두 귀를 열고 가족과 이웃을 잘 살피 서로 배려해주고 아껴주며, 부처님의 뜻으로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반야심경〉의 행자가 돼야 합니다. <끝>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동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염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죽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원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향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